◉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은 남북의 교회가 평화통일을 기원하며 함께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대전 외국인 이주 노동자 센터를 돕기 위해 중고등부 학생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교육관에서 행사가 시작됩니다.

청년들의 순례 여행이 16일(토)부터 23일(토)까지 계속됩니다.

다음 주일 오후 모임은 동호회로 모입니다. 사귐의 기회를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자 권사님의 아버님께서 지난 3일 별세하셔서 장례를 엄수했습니다.

일본 생명·평화·역사 기행이 청년들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영혼을 성숙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새교우 소개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100 Since 1908·5·1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8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www.chungpa.or.kr

자비하신 하나님, 아직도 무더위가 한창이지만 그 가운데 가을절기를 세우시고 시간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우리들의 눈에는 그저 무더울 뿐이지만 주님은 그 안에서도 가을의 열매를 익혀나가고 계십니다. 주님, 이 막바지 무더위 속에서 우리들의 영혼에도 맛있는 알맹이가 들어앉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귀한 것을 허락해주십시오.

주님, 이 세상을 둘러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성경의 말씀이 무색해집니다. 사람이 사람 귀한 줄 모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한 사람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처럼 귀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만나는 이들마다 마치 주님을 대하듯 하라는 사도의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십일조헌금:
박옥식 장영숙 윤정덕 구성실 김준우 우순덕 구명자 백묘현 김정길
최숙화 김희진 박홍재 배삼순 권호천 윤미경 윤수진 이광용 형인순
이예정 이정규 이인섭 조병주 홍순구 안홍숙 문복순 최현선 정한구
장성호 김재흥 최희영 전세종 오정숙 조병무 송양진 황지현 이성운
양재성 문희창 김순복

월정헌금:
김남종 오복순 김영한 이희균 김 극 박경원 박석희 조항미 유증희
이재문 전영규 김경수 정두리 김수진 김승현 박준규 서지영

감사헌금:
김기석 김희우 김지윤 김재흥 임미심 김용진 박효선 김주경 이한림
김명희 이인섭 이형석 오정숙 전성오 전세종 오래된미래 무명4

생일감사헌금: 이성웅 오현정

녹색꿈헌금: 백혜숙 무명1
(누계 : 1,570,000원)

	장 혜 숙	장 혜 숙		
	노 순 옥	정 경 례		
	임 정 자	임 정 자		
	문 영 혜	박 경 선		
	안 정 숙	박 애 순		
	박 홍 재	곽 권 희		
	박 효 선	허 정 윤		
	최 숙 화	권 미 정	쉼	쉼
	이 순 정	김 금 순		
	이 형 숙	권 미 숙		
	안 홍 숙	오 현 정		
	백 혜 숙	정 옥 영		
	송 양 진	유 경 순		
	이 영 란	박 미 영		
	박 혜 경	최 영 혜		

배추벌레

배추흰나비가 특별히 이무롭게 봤는지
마흔 개가 넘는 텃밭 중에
우리 밭에만 배추벌레가 우글거린다.
곰실 곰실 곰실 곰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새벽마다
김도 매주고 흥건히 물도 뿌려줬는데
기르는 재미에 애걸복걸 너무 매달려서 그런지
나중에는 돼지벌레, 톡톡이까지 생겨나서
곰실곰실곰실곰실
열무 엇갈이배추, 사각사각사각사각, 줄기까지 죄다 갉아먹어서
텃밭 농사 졌다고, 솎아서 넘 주기도 민망해
벌레도 생명이라고 그저 놓고 보기엔 내 그릇이 너무 작고
농약을 쳐서 일망타진하기엔 염치가 없어서
사나흘 벌레들과 피투성이 육박전을 벌이다가
열무와 배추를 모두 뽑아내고 깨끗이 항복하고 말았다.
뽑아 던진 배추 위에 내려앉은 배추흰나비 두 마리.

땅을 갈아엎고 다시 씨를 뿌렸다.
(윤중호)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 도 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　　로 :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　　휘 : 윤주원　안홍숙　　**반　　주**: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나의 욕심을 위해 너를 이용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차라리 너를 위해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예수의 방법입니다.

아멘. 이제는 욕망으로 가득 찬 마음을 비우고 살겠습니다. 제 성미 하나 못 이겨 작은 일에 부르르 떠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마음같이 너른 마음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더 나아가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쉬어갈 수 있는 쉼터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말씀 / 손성현 전도사	성서로 배우는 평화 / 김기석 목사
기도 / 윤주원 권사	기도 / 조항범 권사

	설교	기도	성경봉독
다음 주 예배위원	이성운 전도사 김기석 목사	곽권희 집사 김인걸 장로	인도자 권미숙 집사

8월	영접위원	김인걸　김용진　권혁순　박효선　문영혜　박혜경
	헌금위원	김인걸 이순정(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단순하게 살기

1.

공기, 물, 불, 햇볕과 같은 것들은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맘껏 즐기라고, 이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셨거든요. 햇볕은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쬐고, 같은 공기를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함께 마십니다.

그러면 왜, 생명을 지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모두 함께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만드셨는데, 돈은 그렇지 않을까요?

이유는 두 가집니다. 하나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고 다른 하나는 덕행 의 문을 열기 위해서예요. 만약,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공기나 물 따위가 모두 함께 쓸 수 있을 만큼 풍족하지 않다면 욕심 많은 부자들이 그것들을 가난한 이들한테서 가져갈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돈을 쌓아두어야 만족하는 자들이 물이나 공기도 그렇게 하지 않을 리 없지요. 반면에, 돈이 어디에나 넘치도록 있으면 부자 쪽에서는 베푸는 기회를, 가난한 자 쪽에서는 감사하는 기회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2.

부자들은 보통 가난한 사람을 물질적으로 약탈하지 않는 한 자기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자들의 죄는 그들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지 않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부자는 일종의 강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재물이 하나님한테서 오는 것이고 따라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렇다는 증거는 사방에 널려 있지요.

나무와 채소들이 생산해내는 신선한 열매들을 보십시오. 해마다 그토록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는 기름진 흙을 보세요. 우리에게 포도주를 제공하는 포도나무의 달콤한 포도알들을 보십시오.

부자들은 열매와 곡식이 자라는 논과 밭을 자기네가 소유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씨앗을 싹 틔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밭에서 나오는 소출을, 거기서 일한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궁핍한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는 것이 부자들의 임무입니다.

3.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기억하십시오. 모든 인간이 공동의 조상을 모십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의 육신이 같은 물질로 되어 있지요. 귀족의 몸과 시골 농부의 몸 사이에 아무 다른 점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선을 행하여,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없는 사람들을 도와줄 때, 그때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하나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같은 육신을 지니고 있기에, 가난한 이의 고픈 배가 부자들에게 아픔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굶주린 이들의 배를 채워줌으로써만 진정될 수 있어요.

부자들이 자주 자선에 대하여 말하고 저들의 선한 의도를 표현하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부자들의 선한 의도는, 자기네가 가난한 자들과 하나인 줄 알고 있다는 뜻이니 만큼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부자들로 하여금 자기네 말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설득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은 마땅히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에게 말할 기회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래야 합니다.

4.

상업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한 영역이지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상업을 경영하느냐, 그게 문젭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저마다 다른 꿈과 다른 기술을 가지고 살게끔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훌륭한 목수로, 누구는 훌륭한 설교자로, 누구는 메마른 땅에 곡식을 기르는 농부로, 누구는 병을 잘 고치는 의원으로 살아가지요.

이렇게 사람은 각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일을 하거니와, 본인의 기술을 팔거나 본인이 만든 상품을 팔아서 그 돈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품들을 장만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이 자기 상품에 다른 사람들의 것보다 너무 비싼 값을 매기거나 아니면 사람을 고용하고 적절한 삯을 주지 않는 데서 발생합니다. 그 결과로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가난한 사람이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 보면 그 어떤 기술도 다른 기술보다 월등하지 않습니다. 모든 형태의 정직한 노동이 평등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일한 대가로 받는 삯에 차등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질서를 해치는 것입니다.

-이현주 목사가 옮긴 4세기의 성자 요한 크리소수토무스의 글 중 일부입니다.